

# ‘공수 핵’ 빠진 수원FC… 무패 행진 이어가며 건재함 보여주나

## 내일 K리그1 25R, 광주 상대 7연속 무패 도전

이승우·권경원 이적에도 직전 인천 전서 ‘승리’ 이번 경기 승리 통해 ‘전력 차질 우려’ 없애야



팀 내 득점 1위였던 이승우도, 수비의 핵심이었던 권경원도 떠나갔지만 상위권 진입의 길목에 선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광주 FC를 상대로 7경기 연속 무패와 상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수원FC는 오는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25라운드에서 광주와 방문경기를 치른다.

지난 2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직전 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 전에서 대거 4골을 뽑아내며 4-1 대승을 거둔 수원FC는 25일 현재 12승 5무 7패, 승점 41점으로 강원FC와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수원FC 34골·강원 42골)에서 뒤져 리그 5위에 올라 있다.

선두 포항 스틸러스(승점 44점·12승 8무 4패)와는 승점 3점 차다. 수원FC가 이번 라운드에 광주를 꺾고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3점을 챙긴다면 리그 2위 도약도 가능하다.

수원FC로서는 이승우와 권경원의 공백이 아쉽지만 하



지난 2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4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방문경기에서 4-1로 대승을 거둔 수원FC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다. 직전 라운드 인천 전에서 중동리그로 떠난 권경원 대신 잭슨을 투입한 수원FC는 1골을 내주긴 했지만 권경원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데 성공했다.

수원FC는 공격에서도 이승우가 없는 상황에서 강상윤, 정승원, 박철우 등 다양한 공격 루트로 득점에 성공했고 후반 막판 투입된 이승우가 원정 팬들에게 마지막 골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 경기 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순 없지만 공수의 핵이 빠진 상황에서 공백을 최소화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수원FC는 광주 전에서 이승우와 권경원이 빠졌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한다.

수원FC는 올 시즌 광주와 두 차례 만나 모두 승리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두 경기 모두 정승원이 골망을 흔

들었다.

지난 4월 27일 9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정승원과 김태한의 골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6월 29일 홈에서 열린 19라운드에서도 정승원의 결승골로 승리를 가져갔다.

수원FC의 이번 라운드 상대인 광주는 현재 10승 1무 13패(승점 31점)로 중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직전 라운드에서 대구FC를 1-0으로 꺾은 광주는 지난 달 15일 이후 한 달 넘게 연승이 없다.

중상위권 진입을 위해 연승이 절실한 광주는 공수의 핵이 빠진 수원FC를 꺾고 40여일 만에 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한편 K리그2에서 불안한 선두를 지키고 있는 FC안양은 27일 25라운드 충남아산과 홈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안양은 24일 리그 최하위 안산 그리너스FC와 방문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안산 김도윤에게 극장골을 내주며 2-3으로 패하며 13승 4무 5패(승점 43점)로 2위 전남 드래곤즈(승점 41점·12승 5무 5패)에 바짝 쫓기고 있다.

선두 유지를 위해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안양으로서 이번 충남아산 전이 선두 수성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24라운드에 나란히 패배를 기록한 부천FC1995와 성남FC는 같은 날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정민수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개막

# ‘5金 이상’ 목표… 한국, 금메달 사냥 준비 만반

韓, 29일~30일 ‘골든 데이’ 예상  
수영 김우민·펜싱 오상욱 출사표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을 안길 주인공은 누가될까? 오는 27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레이스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 한국의 ‘골든 데이’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으로 이어지는 시간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인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대회 첫 날에도 한국은 메달 레이스에 참여한다.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등 여파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나서게 된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 획득이다.

한국이 이 목표를 이루려면 대회 첫 날부터 메달을 획득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중요하다. 메달 색깔이 금빛이면 더할 나위 없다.

한국의 첫 금메달 주인공으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남자 수영의 간판 김우민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청)이다. 그의 대회 첫 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m 경기가 이날 열린다.

김우민은 지난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400m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21년 열린 도쿄 대회 때 단체전인 계영 멤버로 나섰던 김우민은 이번 올림픽에서 생애 첫 개인 종목 출전과 함께 메달 획득까지 도전한다. 김우민은 도쿄올림픽 이후 3년 간 급성장하며 이번 대회 총 5종의 출전권을 획득했다.

올림픽 무대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김우민이 첫 경기에서 ‘금빛 역영’까지 펼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은 한국 시간 28일 오전 3시42분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파리의 ‘명소’ 중 하나인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펜싱도 기대를 받는 종목이다.

파리 올림픽 펜싱 첫 날부터 한국의 핵심 종목인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남자 사브르 예선에는 오상욱(대전광역시청)과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나서고, 여자 에페에는 송세라(부산광역시청)와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이 출격을 준비한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경력을 지닌 오상욱(2019년)과 송세라(2022년)가 선봉에 선다.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는 개인전 이후 30일부터 이어질 단체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로, 개인전에서 메달리스트가 나온다면 단체전 준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펜싱은 28일 오전 3시40분 여자 에페 동메달 결정전을 시작으로 4시5분 남자 사브르 동메달 결정전, 4시30분 여자 에페 결승전, 4시55분 남자 사브르 결승전이 예정돼 있다. 정민수 기자

# 홍명보, ‘코치 구성’ 출장 마치고 귀국

(축구대표팀 감독)

손흥민 등 유럽과 선수들과도 면담  
오는 29일 감독 취임 공식 기자회견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홍 감독은 지난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인사를 위해 잠시 멈춰 선 홍 감독은 “유럽 출장을 잘 마쳤다. 충분히 좋은 마감이었다. 좋은 얘기를 나눴다”며 “잘 반영해서 정리하겠다”고 소감을 짧게 밝혔다.

외국인 코치 후보자 면접 결과에 따른 코치진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흥민(토트넘) 등 유럽과 선수들과 면담도 진행한 홍 감독은 “선수들과도 좋은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홍명보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공식 선임됐다.

이를 뒤엔 자신이 사령탑 제단 수락 조건으로 내세웠던 외국인 코치 물색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라 본격적인 대표팀 업무에 나섰다.

전술 코치와 피지컬 코치 등 외국인 코칭스태프 후보자 면접을 마친 홍 감독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런던에서 손흥민과 만난 뒤 독일로 이동해 20일에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21일에 이재성(마인츠)과 면담했다.

다음날엔 세르비아로 옮겨 황인범과 설영우(이상 즈베즈다)까지 대면하는 등 유럽과 태극전사들과 교감을 나눴다.

홍 감독은 당초 24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항공편 사정으로 일정이 벌어지면서 계획보다 하루 늦은 25일 출장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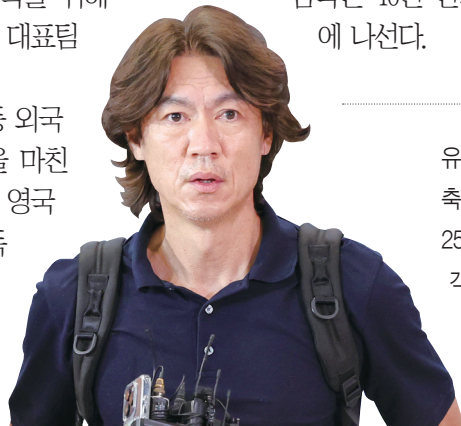
홍 감독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사령탑 취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의 사령탑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축구팬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코치진 면접 결과 등 코치진 구성 계획과 유럽과 면담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9월 5일 오후 8시 팔레스타인을 홈으로 불러들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쓴맛을 봤던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의 대표팀 감독 복귀에 나선다. 연합뉴스



유럽 출장을 마친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엄마 선수’ 금지현, 박하준과 호흡 맞춰 ‘금빛 과녁’ 정조준

(경기도청)

‘한국 여자 소총 간판’ 금지현(경기도청·사진)이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에 출전한다.

대한사격연맹은 오는 27일 프랑스 샤토루시 샤토루 CNTS 사격장에서 열리는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에 금지현과 박하준(kt), 반효진(대구제고)과 최대한(경남대)이 짝을 이룬다고 25일 밝혔다.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은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

파리 올림픽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은 현지시간 기준 개회식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4시)에 프랑스 샤

사격 10m 소총 혼성 종목 ‘참전’ 한국 선수단 ‘첫 메달’ 기대 종목

토루 슈팅 센터에서 본선을 시작해 곧바로 메달을 가리는 결선까지 치른다.

당초 한국 사격 대표팀은 남자 소총 에이스 박하준과 짝을 이룬 선수로 반효진을 낙점하고 대회를 준비했다.

박하준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종목에서 이은서(충남 서산시청)와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합작할 만큼 기량과 경험 모두 풍부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반효진은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17세) 선수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사격 금메달리스트 여갑순 감독의 뒤를 이어 ‘여고생 신화’를 쓸 후보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격 대표팀은 또 다른 여자 소총 선수인 금지현이 현지에 도

착해서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빠른 시간에 많이 쏘야 하는 혼성 종목 특성을 고려해 박하준의 파트너를 반효진에서 경험 많은 금지현으로 교체했다.

한국은 당초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 출전권을 한 장만 확보했다.

국제사격연맹(ISSF)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선수 랭킹포인트에 따른 파리 올림픽 국가별 출전 쿼터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지했고, 한국은 불투명했던 ‘혼성 소총 두 번째 출전권’까지 얻는 데 성공했다.

반효진이 ‘최연소 선수’라는 타이틀을 지녔다면, 금지현은 ‘엄마 선수’라는 별칭이 있다.

지난 5월 바쿠 사격 월드컵 여자 10m 금메달리스트인 금지현은 2022년 10월 임신한 몸으로 카이로 월드컵에 출전해 파리 올림픽 출전 쿼터를 따낸 선수다.

이제 막 돌을 지난 딸을 한국에 두고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을 앞둔 금지현은 메달을 따고 뉘레를 가지는 게 목표다. 정민수 기자



# 베테랑 용병 ‘마이클 영’ 품은 안양 정관장

프랑스·터키 등 유럽프로리그 경험자  
최근 6경기서 18.2득점·3.7도움 기록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이 2024-2025시즌을 치른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정관장은 유럽프로리그 경험이 풍부한 마이클 영(30·206cm·사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피츠버그대를 졸업한 영은 프랑스와 이스라엘, 터키 등 유럽리그 1부 리그에서 활약했으며, 2022-2023시즌에는 일본 B리그 가와사키의 정규시즌 디비전 우승에 힘을 보탰다. 정민수 기자



최근 푸에르토리코 리그 6경기에 출전, 평균 18.2득점, 7리바운드 3.7도움을 기록했던 영은 “주변 동료들부터도 KBL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다”면서

“KBL에서 팀 성적과 함께 나의 경쟁력을 재입증 하고 싶고 새로운 리그 적응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관장은 앞서 KBL 경험이 있는 캐디 라렌과 계약한 데 이어 영을 영입하며 새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 정민수 기자